

80년 5월 중심에 선 서점 사람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녹두서점은 광주 유일의 인문사회과학서점으로 당시 비판적 사상에 목말라했던 시민과 학생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길 원했던 야학 노동자들, 반독재를 외치던 대학과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이야기하고 지적 무기를 단련한 장소였다.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할 때 항상 최후의 거점이었다던 전남도청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다음 아님 녹두서점이다.

이 서점은 지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불과 4년 남짓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책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고립된 시민들을 위해 수많은 대자보와 전단을 만들며 정보를 전달해 준 상황실이자,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간이식당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 윤상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항쟁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간 회의실이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서점 가족의 눈으로 80년 5월 광주에 대한 증언과 살아남은 자들이 이어간 또 다른 항쟁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김상운·정현애·김상집이 공동 저술한 '녹두서점의 오월'은 당시 녹두서점을 운영한 서점 가족의 눈으로 본 1980년 5월의 이야기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녹두서점은 광주 유일의 인문사회과학서점으로 당

시 비판적 사상에 목말라했던 시민과 학생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길 원했던 야학 노동자들, 반독재를 외치던 대학과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이야기하고 지적 무기를 단련한 장소였다.

서점은 당시 금서로 지정된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제공하며 대학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적 수월지' 역할을 했다. 유신정권 반대를 외치다 전남대에서 제적당한 뒤 녹두서점을 차린 김상운, 남편을 도와 서점 살림을 도맡은 중학교 교사 정현애, 그리고 80년 5월, 33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상운의 남동생 김상집이 1980년 5월 광주를 이곳에 불러낸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민주화의 봄을 쿠데타로 짓밟으려는 전두환 신군부에게 녹두서점은 광주 진압을 위해 미리 손을 써주어야 하는 곳 중 하나였다. 5월 17일 자정이 다된 시간, 총을 들고 서점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대공포형사들에 의해 서점주인 김상운은 505 보안부대 지하실로 끌려간다. 겹겹한 지하실 복도,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

명이 낭자한 곳에서 그의 5·18은 시작된다.

남편이 지프차에 실려 어두운 밤거리로 사라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며 홀로 서점에 남겨 된 정현애는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처럼 갑작스레 남편이 구속된 부인들, 녹두서점을 방문한 수많은 학생과 시민, 광주 내 민주인사들에게 남편의 검거 소식과 당시 상황을 공유하고 시간대별로 상황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5월 18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녹두서점은 정현애를 중심으로 어서광주전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학살 소식은 물론 전국 정보가 모이는 상황실로 변모하게 된다.

군제대 후 매일 밤 야학 노동자, 청년들과 함께 시국토론을 벌이던 김상집은 17일 새벽, 들불야학 강학인 윤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다. 윤상원과 함께 녹두서점에 달려간 그는 서점에 모인 청년 학생들과 거리로 나선다. 그곳에서 불과 보름 전 자신이 속해 있던 부대가 운용하는 500MD 헬리콥터가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하



녹두서점의 오월
김상운 외 지음/한겨레출판/1만6천원

고, 눈앞에서는 계엄군이 작검한 총으로 시민들을 무차별 살육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특히 책 곳곳에 각자의 자리에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90년 5월의 참혹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새책안내

굿바이, 헤이세이
(서혜영 옮김)



◆제160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며 일본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첫 소설이다. 안락사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그렸다. 작가는 책에서 죽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작가의 생각을 바탕으로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토마토출판사. 208쪽. 1만3천800원.

그대로인데
(민영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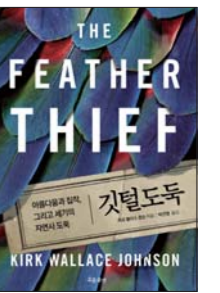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쓴 민영찬 시인의 첫 시집이다. 시인의 인생여정에서 함께 해 온 숲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생활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은 시집이다. 특히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사랑에 관한 시가 주류를 이루며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강한 울림을 제공한다. 북갤러리. 149쪽. 1만원.

그분을 생각한다
(한승헌 지음)



◆독재정권 아래 탄압받은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고 민주화·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씨가 남정현의 '분지' 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간첩단 사건들의 변론을 맡으며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세상을 바로잡겠다며 헌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길을 지키며 살아간 '그분'과의 추억을 진솔하게 술회한다. 문학동네. 356쪽. 1만5천500원.

깃털 도둑
(박선영 옮김)



◆2009년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침입해 299점의 새가죽을 훔친 열아홉살의 천재 플루트 연주자 에드윈 리스트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깃털' 오타쿠의 가벼운 범죄로 문해 버릴 이 사건을 5년여의 취재를 통해 '깃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 탐욕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를 한 편의 뛰어난 소설처럼 재구성했다. 흐름출판. 428쪽. 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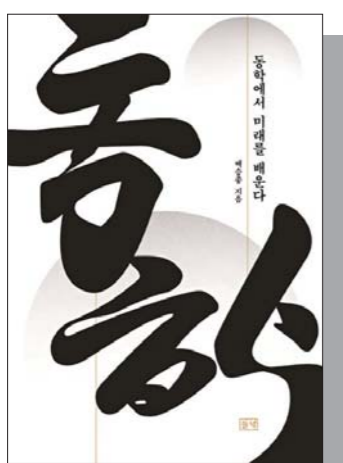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2권
(유홍준 원작)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전국민 답사 열풍을 불러 일으킨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10대 독자들을 위한 책으로 더 쉽고 친근하게 찾아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유 교수와 함께 답사하는 듯한 원작의 현장성과 재미를 그대로 살렸다. (주)창비 어린이출판부. 각 권 156·176쪽. 세트 2만6천원.



“동학농민운동은 사회·문화적 운동”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백승중 지음/들녘/1만4천800원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은 두 가지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하나는 '포악한 정치와 지배층의 잘못을 없애고, 그 위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제폭구민'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술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도와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이다.

올해 첫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을 기념해 동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백승중 서강대(사학과) 교수가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를 내놨다. 백 교수는 이 책에서 동학의 본질을 '관계의 질적 전환'으로 설명하고 동학농민운동의 목적을 '정의로운 공동체'의 건설로 해석한다.

계보학적 접근도 눈에 띈다. 백 교수는

18세기 '정감록'에서 비롯된 사건을 동학의 기원으로 끌어들이고 그동안 동학과 배치된다고 알려진 성리학과 불교에서 '인물성동이론', '미륵하생신앙'과 같은 사상적 원류를 발견해 냈다.

19세기 조선 사회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백 교수는 현대정치 개념으로만 알려진 '사회적 합'가 조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역사에서 무시돼 온 소농과 '평민지식층'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다.

특히 동학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탐구해 '미래의 동학'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목된다.

또 백 교수는 동학사상을 '융합적 창조'로 분석한다. 한 사상의 출현에는 내적으로는 계보학적 이유가 있고, 외적 충격이 있기 마

련인데 저자는 그동안 동학과 배치된다고 생각되던 유교와 불교, 도교를 녹여낸 새로운 사상의 출현으로 동학을 정의한다. 이밖에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때 18~19세기 한 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준 서구의 침략 등이 조선의 내부 상황을 변화시키며 동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 백 교수는 최시형과 전봉준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서로 다른 노선을 취했음을 주목하고 동학의 의미를 되짚는다.

마지막으로 장차 우리가 만들어낼 탈핵과 에너지 전환, 생태전환, 풀뿌리 민주주의 등 '대항 이데올로기'는 과거의 동학에서 충분히 포착되며 이는 곧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동학'이라는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